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개

끊임없는 도전·확장 펼쳐지는 축제의 장 표현
영화제 대표 슬로건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4월 펼쳐지는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와 슬로건을 21일 공개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무빙 포스터의 역동성과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맛깔손'과 '박력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아트디렉팅 스튜디오 MHTL(모어 히트 덴 라이트)이 제작한 포스터는 '전주(JEONJU)'의 이니셜 'J'를 메인 비주얼로 내세워 '도전과 확장, 축제'를 의미하는 스크린으로 그렸다. 이는 새로운 표현의 창구 역할을 하는 스크린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꿈꾸는 영화예술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면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무빙 포스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스크린 J'의 모습

을 볼 수 있다. 메인 비주얼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끊임없는 도전과 확장이 펼쳐지는 축제의 장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설명이다. 올해 영화제를 대표할 슬로건으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가 선정됐다. 그간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실험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영화인들의 창의적인 실험과 독립적인 정신을 지지해왔다. 나아가 한국의 영화산업 현장에 암묵적으로 그려진 선들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한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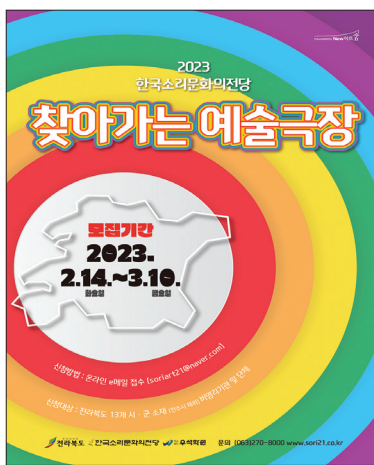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뉴시스

“찾아가는 예술극장 신청하세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내 13개 시·군 문화소외지역 찾아가 진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2023 찾아가는 예술극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예술극장'은 전북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 혜택을 함께 나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대표적인 공공문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라북도 13개 시·군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와 교육·복지 및 의료기관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기

관·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중 각 단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당 홈페이지(www.sori21.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오는 3월 10일까지 이메일(soriart21@naver.com)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부 기획사업팀(063-270-7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천사들의 합창’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모집 오디션 열려

지난 18일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상반기 단원 모집 오디션이 열렸다. 이번 단원 모집 오디션은 작년 연말 김중희 지휘자를 제외한 5명의 지도자 선생님이 재정 바뀐 후 가진 첫 활동으로 2023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심사를 맡은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중희 지휘자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과 함께 2023년에도 합창공연과 뮤지컬 공연을 통해 남원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6년 창단되어 '땀을 향한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음악으로 남원의 문화예술을 전국에 알리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외에도 청소년 국악단과 청소년 농악단이 포함된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을 창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 창단으로 우리 시에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예술 인재로 키워 내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을 세계에 알리는 사절단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군산 근대미술관 '손현주 초대전' 개최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군산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오는 4월 11일까지 손현주 초대전 '墨(묵)의 樂(낙) 英60年 서예전 東園(동원) 손현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작가의 60년 서예 인생과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전시로 '송절의', '영', '동몽독본 취구', '이규보즉사 시' 등 자신만의 독보적인 필체로 서예작품 20여점을 전시해 보는 이들에게 서예의 맛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현주 작가는 전북서예대전, 현대서예대전 등 다수의 전시 개최한 경력이 있으며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전북 서예전람회, 각종 백일장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21일 오후 동리극약당에서 한국예총 고창지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고창 문화예술 품격 향상 위해 최선”

한국예총 고창지회 제11대 한상용 회장 취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지회 11대 신임 회장으로 한상용 미술협회장이 취임했다. 21일 오후 동리극약당에서 열린 한국예총 고창지회 이·취임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성수 전북도의원, 소재호 전북연합회 예총회장 등 내빈들과 예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상용 신임 회장은 고창 상하우체국장, 한국예술문화협회 초대작가, 고창예총 미술협회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고창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상용 회장은 "고창군 문화도시 지정과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창예총 회원들과 함께 고창군 문화예술 품격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를 마무리한 박종은 이임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며, 예술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한상용 회장을 필두로 고창 예술계의 소중한 가치를 잘 보존하고, 군민들의 삶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예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고향사랑기부부 동참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 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등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다. 협의회는 업무협약 및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작년 새 정부에 지역문화정책을 제안하는 정책포럼 개최, 4개 지역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발표하는 축제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공동 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지난 20일 전주에서 모임을 가졌다. 올해는 각 재단의 우수 사업을 공유하고, 직원 직무역량을 위한 교육을 공동 운영하는 등



재단의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북, 광주, 전남, 제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부에 동참의 뜻을 밝히고 본인의 거주 지역 외 3개 지역에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부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